

17세기 ~ 19세기 남성 재킷류의 소매패턴 연구

박상희·최정욱**

안양과학대학 패션 스타일리스트 전공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전공 조교수**

Study on Sleeve Patterns of Men's Jackets from 17C to 19C

Sang-Hee Park · Jeong-Wook Choi**

Additional Prof., Dept. of Fashion Stylist, Anyang Technical College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8. 6. 15. 접수; 2008. 8. 25. 수정; 2008. 8. 26. 채택)

Abstract

Men's outer wear, such as jackets and coats appeared since the 16th century. They have been changed from doublets, coats, justaucorps, tail-coats, frock coats and morning coats to contemporary men's suits. Since the early 17th century, sleeve patterns of men's outer jackets had been mostly two-pieces close fitted patter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sleeve patterns of various jackets, which appear in various historic costume books. Armhole measurements, sleeve head measurements, amounts of ease, armhole depths, armhole widths, crown heights, sleeve width and sleeve angle had been compar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mong patterns of different times and styles.

Coming to the present, the difference between top sleeve and under sleeve became more obvious, and the sleeve angle became less curvy.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re had been considerable amounts of eas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sleeve head measurements and corresponding armhole measurements. It is because the sleeve has been attached to the armhole not by seam but by string. It is believed that the present sleeves have more natural curve and shape compared to the past.

Key Words: Men's Jacket(남자 재킷), Coat(코트), Sleeve Pattern(소매패턴), Arm Hole(진동), Two-pieces Sleeve(2장소매)

I. 서론

남자복식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자복식과의 구분이 확연해지고 상·하의의 구별이 뚜렷해졌다. 남성들은 슈미즈 위에 재킷과 같은 아우터 웨어와 바지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현대 남성 신사복이 셔츠, 재킷, 바지로 정립되는 초기 형태라 볼 수 있다.

남자복식의 상의 아우터 웨어(outer wear)는 특별한 디자인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몸판과 칼라, 2장 소매로 제작된다. 소매는 자연스러운 팔의 모양을 따라 전체적인 실루엣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팔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매 품을 넉넉하게 한다. 소매부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2장 소매는 17세기의 남성복 더블릿(doublet)의 소매에서 시작되어 쥐스또코르(justaucorps), 프락(frac), 테일 코트(tail coat), 라운지수트(lounge suit), 그리고 현대 신사복으로 이어진다.

소매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 활동성이 큰 부분으로서 의복구성학적 측면에서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는 부분¹⁾이다. 남자복식의 2장 소매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400여 년간 그 시대의 유행 경향에 따라 변화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남성복식의 2장 소매 패턴형태를 비교·연구하여 현대 남성 신사복의 소매패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소매패턴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남자 재킷류의 변화 과정

1. 16세기 르네상스시대

남자의 뿌르뿌엥(pourpoint)이 15세기가 지나면서 옷 길이가 짧아져 재킷이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옷 길이가 짧고 몸에 꼭 끼는 이 옷을 더블릿(doublet)이라 불렀다. 16세기 남자들은 속에 슈미즈를 입고 그 위에 더블릿을 입었으며 그 위에 저킨(jerkin)을 겹쳐 입기도 하고 아래는 호즈(hose)를 입었다.

더블릿은 허리아래에 스커트부분이 달린 것, 짧은 페플럼이 달린 것, 소매가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1550년 이후에는 허리아래 스커트부분이 없어지고 스페인 복식의 영향으로 몸에 꼭 끼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소매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꼭 맞는 것, 어깨에 퍼프가 있는 것,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풀리고 손목까지 조이는 형태 등이 있었다. 1540년경에는 소매를 따로 만들어서 진동둘레에서 끈으로 연결하여 입은 것이 나타났는데, 1545년 이후에는 일반화되어 어깨에 윙(wing) 또는 에폴렛(epaulettes)이라는 장식천으로 진동연결선을 가렸다²⁾.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진동둘레와 소매산 둘레 길이의 차이를 조절하여 봉제할 필요성이 없었다.

2. 17세기 바로크시대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시민문화의 육성으로 16세기 귀족풍이 감소되어 단순하고 여유있으며 생활에 편리한 의상을 좋아하게 되었다. 귀족적 우아함의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고 몸에 꼭 끼는 실루엣이 헐렁한 스타일로 바뀌어 실용적이며 입기 편한 복장으로 되어³⁾ 복식문화의 중심이 귀족에서 시민으로 옮겨가는 초기 과정의 특징을 보였다.

16세기에서 이어진 더블릿은 1630년 후 더블릿 허리선이 올라가고 소매는 17세기초에 비해 훨씬 좁아졌으며 손목으로 내려 갈수록 좁아졌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더블릿의 옆선이 직선이 되어 헐렁하고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로 변화되고 소매통이 직선으로 되어 넓어지고 넓적한 커프스를 달았다. 1650년 이후 더블릿의 길이가 짧아져 허리와 소매 부리에 슈미즈부분이 밖으로 나오고 점점 작아져 1670년대에는 코트의 안에 착용하게 되어 보여 지는 일이 적어⁴⁾ 코트로 대체되었다. 중세 병사들이 입던 실용적인 코트에서 시작한 쥐스또코르(justaucorps)는 루이 14세의 즉위와 함께 생기기 시작한 코트의 일종으로 처음 10년간은 직선적인 실루엣길이는 넓적다리 중간 길이의 일상복으로 조끼위에 입혀졌으나 점차 길이는 무릎길이, 몸체는 몸에 붙게, 밑단은 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랫단은 자연

스럽게 별려져있다. 소매는 끝단을 접어 폭을 넓게 한 커프스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이후 18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자복식에 시민적 성격을 확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하고 실용적인 의상의 현대 남자 양복(suit)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3. 18세기 로코코시대

17세기에 확립된 남자의 기본복식인 코트, 조끼, 바지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재단방법과 실루엣의 변화가 나타났다. 코트는 허리까지는 몸에 꼭 맞게, 무릎길이의 스커트는 플레어지고 뒤 중심에 트임이 있거나 양 옆쪽의 주름사이에 트임이 있는 것과 칼라 없거나 폭 좁은 차이나 칼라 달린 것이 있으며 여전히 소매단에 커프스가 달려있다⁶⁾.

18세기 전기 코트의 소매형태는 소매통이 잘 맞고 커프스가 없이 소매 끝에 트임이 있고 단추가 달려있는 것과 넓직한 커프스가 달린 것이 있었다. 소매 끝에는 슈미즈의 러플이 보이게 착용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넓직한 커프스는 점점 없어지고 폭이 좁은 것이나 손목에 잘 맞는 것이 1770년대 이후 유행하였다⁷⁾.

18세기 중엽부터 남성복식은 곡선의 취향이 사라지고 직선적 취향으로 바뀌면서 프락(frac)이라고 하는 영국풍 코트가 유행하였다. 소매가 간소화되어 소매통이 잘 맞는 형태로 후기로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스커트의 풍성함이 줄어들어 품위보다는 실용성이 강조하였으며 1760년 코트의 앞쪽을 비스듬히 재단하여 앞이 벌어지고 뒷단에 슬릿 slit을 주어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여러 나라의 공복으로도 사용되고 이를 프랑스 궁중에서는 아비아라 프란세스라고 불리웠으며 오늘날의 연미복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770년대 소개된 테일 코트(tail-coat)는 앞면을 허리선보다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재단한 컷어웨이(cut-away)타입이었다⁸⁾.

4. 19세기 근대시대

19세기 남자 코트와 바지 재단법에 새로운 기

법이 도입되고 구성상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현대 남성복과 같은 슈트(suit)가 정립된 시기이다. 17세기부터 입어왔던 코트는 18세기에 귀족적인 취향과 함께 화려한 의상 품목이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코트의 앞자락을 잘라낸 것 같은 테일 코트(tail-coat)를 일반적으로 입게 되고 19세기 후기에는 코트의 스커트부분이 없는 현대의 재킷이 되었다. 19세기 전기에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복장을 달리하여 의복의 종류가 늘어나고 신형 자본가계층과 전래의 귀족간에 의복에 있어서 경쟁하여 댄디즘(dandyism)이 생기게 되었다⁹⁾.

1800년대에는 앞판의 허리 아래 선을 잘라낸 모양의 테일 코트, 앞판을 잘라내지 않고 허리에서 도련까지 뒤쪽으로 앞단이 곡선으로 휘어진 모닝코트(morning coat), 앞판이 도련까지 약간 경사지게 벌어지는 프록코트(frock coat), 스커트부분이 없이 힙선까지 짧아진 라운지 슈트(lounge suit)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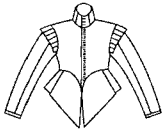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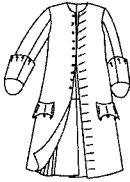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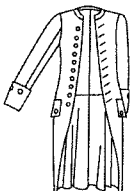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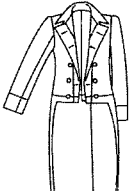
1) 테일 코트

19세기 초부터 입기 시작한 테일 코트는 앞길은 허리선까지만 오고 뒤쪽은 무릎길이의 뒤 중심에서 허리선 아래가 절개되었으며 소매는 좁고 긴 형태로 소매 끝에 라운드 커프스(round cuff)가 달린 것과 소매 끝에 트임이 있고 두세 개의 단추를 단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작게 재단되어 여름 수는 없었으며 19세기 초까지 낮에 입는 일상복이었으나 1820년부터는 저녁시간의 야외용과 공식용 정장으로 넓은 라펠이 달려있다.

2) 프락

18세기 후기 영국으로부터 전파되어 유럽전역에 유행된 남자용 상의이다. 루이 16세 때에는 공복으로 착용되었는데 허리부근에 여유분을 없애고 앞 허리에서 단까지 사선으로 재단되고 뒤 중심은 갈라져있다. 프락은 앞의 단추를 여미지 않고 열어 안의 베스트가 보이게 착용하였다. 19세기에서는 뒤쪽의 천이 가늘고 긴 연미형태가 되거나 또는 폭이 넓어 무릎을 덮는

<표 1> 남자 재킷류의 변화 과정

시 대	형 태	명 칭	설 명
17세기		더블릿 (Doublet)	쁘르쁘앵(pourpoint)이라고도 한다. 16세기부터 시작되었으나 2장 소매가 나타나 것은 17세기 초이다.
		코트 (Coat)	17세기 말엽부터 더블릿이 작아지고 그 위에 겹쳐 입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쥐스트꼬르 (Justaucorps)	스커트부분이 넓게 퍼진 쥐스트꼬르와 앞선을 사선으로 잘려진 아비 아 라 프랑세즈는 코트의 일종으로 프랑스 궁중복으로 사용되었다.
		아비 아 라 프랑세즈 (Habit a la française)	
		라이딩코트 (Riding Coat)	스커트 부풀림이 사라지고 사선으로 절개한 앞도련, 말을 타기 편하도록 뒤트임이 있는 라이딩 코트가 등장하였다.
19세기		테일코트 (Tail Coat)	앞 허리 아래를 절개하고 뒤쪽은 무릎까지 오게 하는 코트로 정장용 코트로 이시기에는 의복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규범이 존재하였다.
		프락코트 (Frac Coat)	허리아래에 스커트가 달린 코트로 일상복으로 다양한 스커트 형태가 있었으나 짧은 재킷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
		모닝코트 (Morning Coat)	약식 예복으로 프록 대신 입기 시작하였으며 앞이 사선으로 절개되고 허리에 주머니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라운지수트 (Lounge Suit)	테일코트와 세크코트의 절충형으로 남자복식의 일상복이 확립된 시기의 짧은 재킷이다.

것도 있었다. 또한 어깨와 가슴을 부풀게 하고 다리는 가늘고 길게 연출하는 역삼각형 실루엣이 유행하였다¹⁰⁾. 1820년대 중반까지 낮에 입는 상의로 인기가 있었으나 길이가 짧은 재킷의 출현으로 기본 복식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사교복으로만 착용되었다.

3) 모닝코트

남자의 주간 약식 예복으로 프록코트 대신 입은 것인데, 싱글 또는 더블 여밈으로 약간 로우 웨이스트에 절개선이 있고 앞자락이 사선으로 되어 있다. 주머니는 뚜껑이 허리 절개선에 위

<표 2> 참고문헌 별 수집 패턴

아이템 참고문헌	투블렛	코트	웨이스트 코트	쥐스또 꼬르	아비아라 프랑세즈	라이딩 코트	프락코트	테일코트	모닝코트	라운지 수트
A	1	1		3	1		3	2	2	
B				1				1		
C	4									
D							1			
E		1		1	1	1				
F	3		1	2	2	1	1	1	1	2
G	1	1	1	1	1			1		1

지한다. 1870년대에는 라펠이 커졌으나 1890년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칼라와 라펠이 작아졌다.

4) 라운지 수트

디너재킷(dinner jacket)은 라운지 수트라고도 불리우며 테일코트와 새크코트(sack coat)가 절충된 것 같은 모양이다. 남자복식으로 일반화된 일상복과 예복 등이 거의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래의 여유분 비교를 위하여 주름을 잡는 소매형태는 배제하고 2장 소매 패턴 위주로 하였다.

패턴자료는 Norah Waugh의 The Cut of Men's Clothes(A)¹², Carl Köhler의 A History of Costume (B)¹³, Janet Arnold의 Patterns of Fashion(C)¹⁴, M. Fernard · E. Shenton의 Historic costumes and how to make them(D)¹⁵, R. I. Davis의 Men's 17th & 18th Century Costume, cut & fashion(E)¹⁶ 그리고 Margot Hamilton Hill · Peter A. Bucknell의 The Evolution of Fashion(F)¹⁷과 Katherine Strand Holkboer의 Patterns for Theatrical Costumes(G)¹⁸에서 수집되었다. <표 2>는 참고된 패턴의 출처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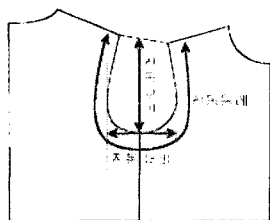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및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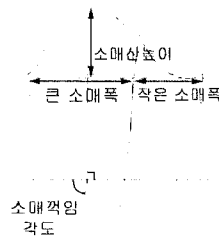
남자복식이 변화·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남자복식의 패턴이 제시되어 있는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의 투블렛, 쥐스또 꼬르, 프락코트, 테일 코트 등 그 시대에 대표적인 아이템들의 소매 패턴을 수집하였다. 진동물

2. 패턴 제작 및 분석

선정된 패턴들은 실제 사이즈로 제작하고 각각의 패턴들은 소매패턴을 중심으로 진동 너비, 진동 깊이, 진동둘레와 소매폭, 소매산 높이, 소매둘레를 비교·분석하여 소매 패턴의 여유분량과 실루엣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그림 1> 진동 깊이와 진동너비¹¹⁾



<그림 2> 소매 폭과 소매 꺾임 각도

<표 3> 아이템 및 시대별 소매 부분 치수

(단위: cm)

아이템 종류	시 대	진 통 둘레	소 매 둘레	ease량	진 통 깊이	진 통 너비	소매산 높이	소매폭	팔꿈치 각도
두블렛	1605	51.0	50.4	- 0.6	19.4	16.8	13.4	44.0	66.0
	1610	47.2	46.4	- 0.8	17.8	17.3	6.0	42.6	55.0
	1615	46.0	52.6	6.6	18.2	15.5	7.4	49.4	56.0
	1615-20	50.8	53.4	2.6	18.7	17.0	7.2	49.0	69.0
	1620	46.2	51.2	5.0	18.4	13.8	12.4	43.2	60.0
	1615-25	44.4	45.2	0.8	18.0	11.4	7.7	41.8	65.0
	1625	46.6	58.4	11.8	19.1	11.4	16.4	43.4	65.0
	1630	40.4	42.4	2.0	16.0	13.0	6.8	39.6	52.0
코트	17세기초	45.6	60.0	14.4	19.7	11.1	14.4	52.8	60.0
	1681	41.4	41.0	- 0.4	16.3	13.4	7.3	36.9	60.0
	1690	53.5	61.8	8.3	21.8	14.6	17.0	47.0	71.0
웨이스트 코트	17세기말	48.8	58.5	9.7	20.7	13.8	15.5	46.9	63.0
	1690	49.0	50.8	1.8	19.4	13.8	13.5	40.5	60.0
취스또 코르	17세기말	47.5	56.0	8.5	20.6	11.7	14.6	43.2	74.0
	1700	40.4	40.8	0.4	19.3	6.8	8.0	36.0	65.0
	1710	52.3	60.8	8.6	20.7	14.5	16.0	46.2	75.0
	1727	57.8	62.7	4.9	21.0	18.6	12.7	52.5	60.0
	1730	47.0	47.0	0.0	18.1	13.7	9.7	39.8	55.0
	1740	45.6	51.0	5.4	19.6	11.3	12.1	42.2	75.0
	1755	47.8	51.2	3.4	18.7	12.6	12.5	47.1	70.0
	1760	45.2	46.3	0.9	17.0	14.2	8.7	39.8	70.0
야비 아 라 프랑세스	18세기말	50.4	56.3	5.9	21.2	13.0	10.4	48.5	60.0
	1770	48.9	54.4	5.5	19.6	12.6	13.6	45.8	68.0
	1775	45.0	45.0	0.0	16.3	13.0	8.5	39.2	65.0
	1780	50.0	50.6	0.6	19.0	15.9	13.3	40.0	65.0
	1785	54.8	63.6	8.8	19.7	14.4	18.0	47.3	71.0
라이딩 코트	18세기말	52.3	60.6	8.3	19.5	13.9	11.3	53.8	65.0
	1790	52.3	63.2	10.9	21.5	14.1	17.8	46.2	71.0
프락 코트	1795	48.5	55.6	6.9	19.5	12.0	11.3	45.8	60.0
	1835	44.5	55.6	11.1	16.4	18.8	13.8	44.5	70.0
	1840	42.4	48.6	6.2	15.8	11.3	11.2	40.8	69.0
	1843	50.0	54.7	4.7	20.0	15.1	12.8	46.3	60.0
	1869	49.7	55.0	6.3	20.3	13.6	13.0	45.8	62.0
테일 코트	19세기말	38.8	47.0	8.2	15.4	10.4	10.0	40.5	73.0
	1825	46.3	48.3	2.0	17.4	17.3	10.5	41.4	70.0
	19세기말	38.8	43.2	4.4	14.0	11.2	10.3	40.6	75.0
	19세기말	35.5	42.6	7.1	12.2	10.8	9.0	36.7	70.0
	19세기말	50.2	64.4	14.2	19.8	16.3	16.3	49.7	66.0
모닝 코트	1900	47.0	53.2	6.2	19.7	12.7	12.7	45.2	70.0
	19세기말	37.5	48.4	10.9	15.0	13.3	10.5	42.4	70.0
	19세기말	48.8	60.0	11.2	18.7	14.2	14.2	50.0	60.0
라운지 수트	1906	42.8	53.1	10.3	16.8	12.8	12.2	44.4	70.0
	1880	46.4	51.5	5.1	17.0	12.1	11.0	43.2	65.0
	1896	51.4	53.8	2.4	19.8	13.3	12.8	45.4	70.0
박광애 이형숙	19세기말	48.6	51.8	3.2	18.8	14.2	11.2	45.0	55.0
	현 재	52.6	56.4	3.8	22.0	14.6	18.5	40.4	77.0
이형숙	현 재	52.6	55.7	3.1	21.0	15.1	18.4	38.4	78.0

실루엣을 나타내주는 2장 소매의 폭 차와 소매 꺾임 각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남성 신사복 재킷 소매 패턴은 남성복 패턴제작법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이형숙의 남성복 연구¹⁹⁾와 박광애의 남성복패턴 디자인²⁰⁾을 참고로 제작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차이와 변화과정 등을 고찰하였다. 현대 남성 패턴은 다른 참고문헌에 제시된 키 178cm, 가슴둘레 96cm, 허리둘레 87cm, 그리고 엉덩이둘레 97cm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아이টে에 따른 진동둘레와 소매둘레 치수

수집된 아이টে의 측정치수는 <표 3>와 같으며 더블렛의 경우 소매 이즈(ease)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매가 진동 둘레에 연결된 형태보다 끈으로 연결하여 착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소매 연결선은 에폴렛(Epaulettes)이라는 장식에 의해 가려지므로 더블릿을 착용하는데 있어 진동둘레와 소매산 둘레 차에 의한 맞춤새는 외관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쥐스또꼬르나 아비 아 라 프랑세스와 같은 코트류가 유행하던 18세기에는 비교적 타이트한 소매의 유행으로 소매산 둘레의 여유분이 현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로맨틱 시대로 접어들어 19세기의 아이টে에서는 여유분이 상당히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퍼프 슬리브가 남녀 모두 유행하던 시기로 플리츠나 개더형태가 아닌 소매 형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즈분을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많은 이즈분이 라운지 슈트에서는 거의 현대 복식과 같은 이즈분으로 줄어들는데 이는 과장된 슬리브의 유행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실루엣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진동길이와 소매폭을 비교해보면 진동길이가 길수록 소매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대 패턴의 제작 과정에 비추어볼 때 진동길이가 가슴둘레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매산 높이를 비교하면 20세기 초까지 그

차이가 적고 현대 복식에 와서 소매산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세기 이전의 소매는 현대에 비해 상당히 타이트한 형태를 선호함으로써 소매산을 낮추어 활동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매각도 역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넓어지는데 이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블릿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매산이 낮아진다거나 진동 길이가 소매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더블릿이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몸판에 봉제되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매둘레나 진동둘레의 차이는 팔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블릿이 작아지고 조끼와 같은 형태의 것이 됨으로서 그 위에 겹쳐 입는 성격을 띠는 외투의 일종인 코트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소매둘레의 이즈분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에 입는 조끼나 더블릿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프랑스 궁중복인 쥐스또꼬르와 아비 아 라 프랑세즈의 이즈분량은 조금 줄어들었으며 그 양은 재킷 수준 정도로 보여진다. 특히 쥐스또꼬르 경우 다른 아이টে에 비해 이즈분이 적고 이즈분이 적을수록 소매산이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비 아 라 프랑세즈의 소매둘레와 진동둘레, 이즈분 등은 앞 시대 비해 커져있지만 이에 반해 진동 길이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트의 허리아래 스커트부분이 작아지면서 몸판이 몸에 피트되고 가슴을 내미는 스타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라이딩 코트, 프락 코트 등 18세기 후반의 코트류 부터는 소매산이 낮아질수록 소매폭이 넓어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시기에 소매패턴이 현대와 같이 소매산의 높이에 따라 소매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소매의 형태를 좌우하는 소매꺾임각도는 아이টে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소매의 꺾임정도가 완만한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대 소매 패턴과 비교해 볼 때 현대의 패턴이 과거의 것에 비해 진동둘레가 크고 이즈분은 상당히 작아나 오히려 없으며 소매산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아이템별 소매 부분 치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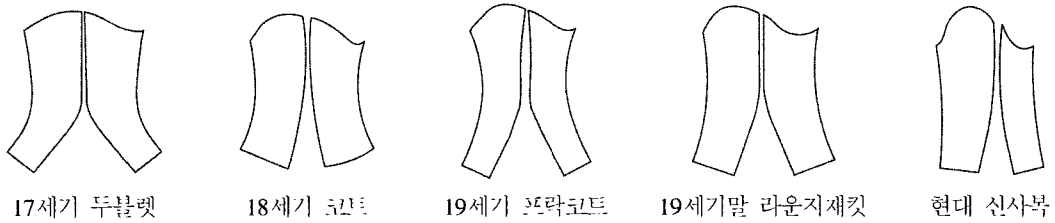
(단위: cm)

아이템 종류	진동둘레	소매둘레	ease량	진동깊이	진동너비	소매산높이	소매폭	팔꿈치각도
두블렛	46.5	51.1	4.6	18.4	14.1	10.2	45.1	60.9
코트	47.9	53.8	5.9	19.6	13.9	13.3	43.6	64.7
웨이트 코트	48.3	53.4	5.2	20.0	12.8	14.1	41.9	67.0
취스또꼬르	48.3	52.0	3.7	19.5	13.1	11.3	44.0	66.3
아비 아라 프랑세스	50.2	54.8	4.6	18.8	13.9	12.9	45.2	66.8
라이딩코트	50.4	59.4	8.9	20.5	13.1	14.6	46.0	65.5
프락 코트	45.1	52.2	7.3	17.6	13.8	12.2	43.6	66.8
테일 코트	43.6	50.3	6.8	16.6	13.7	11.8	42.7	70.2
모닝 코트	43.0	53.8	10.8	16.8	13.4	12.3	45.6	66.7
라운지수트	48.8	52.4	3.6	18.5	13.2	11.7	44.5	63.3
현대 신사복	52.6	56.1	3.5	21.5	14.9	18.5	39.4	77.5

<표 5> 아이템별 두 장 소매의 폭차

(단위: cm)

아이템 종류	시대	전체 소매폭	큰 소매폭	작은 소매폭	소매폭차
코트	1690	47.00	23.00	24.00	- 1.0
취스또꼬르	1727	52.50	22.85	29.55	- 6.6
	1760	39.80	19.10	20.70	- 1.6
라이딩코트	1790	46.20	22.85	23.35	0.5
프락 코트	1835	44.50	24.10	20.40	3.7
	1840	40.80	21.20	19.60	1.6
	1843	46.30	23.95	22.35	1.6
	1869	45.80	24.00	21.80	2.2
테일 코트	1825	41.40	21.20	20.20	1.0
	19세기말	40.60	21.30	19.30	2.0
	19세기말	36.70	19.05	17.65	1.4
	19세기말	49.70	25.15	24.55	0.6
	1900	45.20	23.30	24.70	1.4
모닝 코트	19세기말	42.40	22.75	19.65	3.1
	1906	44.40	23.35	21.05	2.3
라운지수트	1880	43.20	22.60	20.60	2.0
	1896	45.40	23.70	21.70	2.0
	19세기말	45.00	22.75	22.25	0.5
박광애	현 재	40.40	24.15	16.25	7.9
이형숙	현 재	38.40	24.35	14.05	10.3



<그림 3> 시대별 대표 소매 형태

<표 4>은 아이템에 따른 소매부분의 평균치인데 현대 남자 신사복과 가장 비슷한 19세기말의 라운지 수트는 이즈분을 비롯한 진동너비나 길이에서 현대의 것과 가장 유사한 치수를 보였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의 남성복식은 진동둘레는 현대 재킷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에 비해 소매폭은 넓게 측정되었다. 이는 소매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매산이 낮아 소매폭이 넓고 소매 꺾임각도가 작아 소매단이 앞으로 나아간 형태를 띤다.

진동깊이가 테일코트와 모닝코트가 낮은 이유는 이 시기가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유행하던 시기로 등을 바로 펴고 가슴을 내미는 자세를 주로 취함으로써 앞판의 진동둘레가 길어지고 뒤 어깨선이 낮게 재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매의 꺾임각도는 17세기 더블렛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그 각도가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재킷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팔꿈치 내린 자연스러운 자세 형태에 가깝도록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이전과 이후 소매의 가장 큰 차이는 큰 소매와 작은 소매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2장 소매는 좀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큰 소매와 작은 소매는 크기차이보다는 큰 소매와 작은 소매로 구분되어 제작되었다. 소매 옆선은 곧 소매의 굵

은 형태와 같으며 2장의 소매를 연결하는데 있어 소매 옆선의 길이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5>와 같이 20세기 초반까지의 소매 역시 큰 소매와 작은 소매의 폭 차이는 있으나 그 양이 현대와 달리 적고 무엇보다 팔꿈치선을 기준으로 소매단까지는 이전 세기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였다.

큰소매와 작은 소매의 폭차는 최대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쥐스또꼬르의 경우는 소매산이 낮고 이즈분이 적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소매통이 작았다. 따라서 작은 소매의 중앙에 삼각무를 덧대어 소매둘레에 여유를 넣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작은 소매의 폭을 넓혀주었다. 19세기에 들어서 소매둘레의 이즈분을 유지하고 소매를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선까지 소매옆선이 오목하게 수정되었다. 이는 현대 신사복의 소매옆선을 약간 볼록하게 제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그림3>.

2. 시대에 따른 진동둘레와 소매둘레 치수

시대별 소매와 진동 부위의 치수를 비교해보면 더블렛과 같이 길이가 짧고 슈미즈위에 입는 재킷류가 유행하던 17세기와 코트류가 유행하던 18세기의 진동둘레를 비교해볼 때 18세기 것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이 주로 유행하던 19세기에는 오히려 18세기에 비해

<표 6> 시대별 소매부분 치수 평균

시 대	진동둘레	소매둘레	ease량	진동깊이	진동너비	소매산높이	소매폭	팔꿈치각도
17세기	46.5	60.0	4.6	18.4	14.1	10.2	45.1	62.7
18세기	49.9	54.9	5.0	19.4	13.8	12.6	45.3	66.4
19세기	45.1	51.9	6.9	17.4	13.6	12.0	43.8	67.0
현 대	52.6	56.1	3.5	21.5	14.9	18.5	39.4	77.5

<표 7> 시대별 소매폭 비교

시 대	전체 소매폭	큰 소매폭	작은 소매폭	소매폭차
17세기	47.00	23.00	24.00	- 1.00
18세기	41.16	19.30	21.88	- 2.56
19~20세기초	43.67	22.74	20.93	1.81
현 재	39.40	24.25	15.15	9.1

진동둘레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재킷이나 코트의 외형적 실루엣이 진동둘레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표 6>.

소매 이즈분의 경우, 19세기의 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가 남성도 양다리소매와 같이 소매산을 부풀린 형태가 유행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대에 와서는 소매산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소매폭은 줄어들고 전체적인 소매실루엣이 가늘고 긴 형태로 변화되었다. 소매격임각도 현대에 올수록 그 각이 커짐으로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와 비슷하게 되었다.

19세기 진동깊이는 그 시대의 유행경향에 따라서 가슴을 내밀고 등을 곧게 펴는 자세가 주를 이루었던 시기로 뒤관의 어깨선이 이전세기에 비해 많이 처진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진동깊이가 가장 낮은 시대이며 동시에 소매산부분을 많이 부풀리는 유행으로 인해 이즈분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매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17세기 경우, 제시된 패턴 중에 1개의 예시밖에 없어 17세기에는 전반적으로 소매 폭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8세기 역시 소매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시된 패턴 중에 극히 일부에 한했으며 이 두 세기 동안 두 장 소매 폭의 차이는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세기에 드물게 보여지는 폭이 다른 두 장 소매 패턴의 경우는 모두 작은 소매가 큰 소매보다 크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표 7>.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소매패턴의 경우 큰소매와 작은 소매의 구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폭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폭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진동선부분 즉, 겨드랑이부분에 가까운 상완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현대의 큰 소매와 작은 소매와 같이 전체적인 폭차를 보이는 패턴은 20세기 초반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V. 결 론

남성 재킷의 두 장 소매는 17세기 초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초까지 몸판의 진동 깊이나 진동너비, 소매산 높이 또는 소매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남자복식에도 유행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큰 소매와 작은 소매의 구분이 확연해지면서 소매의 격임각도가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17세기 더블릿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두 장 소매는 소매폭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소매의 격임형태가 바로 봉제선이 된다. 소매는 몸판의 진동둘레에 직접 봉제되지 않고 끈으로 연결되어 착장됨으로 소매둘레와 진동둘레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매의 폭은 활동에 편안한 정도로 넓으므로 그 차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소매의 격임 각도는 60°내외로 많이 꺾여져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작은 소매와 큰 소매의 사이즈는 동일하고 소매산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17세기 말부터는 몸판과 소매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변화됨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말 까지 소매패턴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유행한 코트류의 소매는 재킷과 같은 더블릿에 비해 소매둘레나 진동둘레는 약간 커지고 소매산 역시 약간 높아졌으나 작은 소매와 큰 소매의 폭은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코트가 19세기에 들어서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 구분된 다양한 코트류로 발전되는데 이 시기는 현대 신사복의 소매에 근접하게 된다. 유행경향에 의해 진동깊이가 다른 시대에 비해 낮지만 진동깊이의 변화에 따라 소매폭의 변화가 보여지며 소매의 격임각도도 상당히 완만하게 변화되었다. 다만 현대의 소매폭은 큰 소매와 작은 소매로 그 폭차이가 확연히 들어나는 것에 반해 20세기

초기까지 그 폭차가 조금씩 보여지기는 하지만 진동선 부근의 상완위치에 그치는 정도이다. 즉 현대와 같이 큰 소매와 작은 소매와의 전체적인 폭차이는 20세기 초반을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 재킷의 2장 소매는 17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남성복식도 유행경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복식의 종류가 증대하고 디자인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발전되었다. 17세기에서 20세기초반의 복식은 현대의 복식에 비해 몸에 좀더 피트되고 격식화되었는 것에 반해 현대의 복식은 과거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형태.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소매패턴의 형태에 대한 고찰은 현대 소매패턴이 완성되어진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역사적 의복에 대한 패턴 제작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문남원, 조훈정 (2001). 두 장 소매의 패턴 메이킹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pp.700-711.
- 2) 신상옥 (1990).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p.149-151.
- 3) Men's wear History. 자료검색일. 2008. 6.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4) J. A. Black 매취가랜드. 윤길순 역 (2005). *세계패션사*. 서울: 간디서원, pp.223-232.
- 5)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219- 220.
- 6) Carl Köhler (1968).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pp.322-340.
- 7) 신상옥 (1990). Op. cit., pp.202-207.
- 8) 정홍숙 (2003). Op. cit., pp.256-260.
- 9) 최영옥 (1999). 남성상의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 pp.109-136.
- 10) Franç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p.384-404.
- 11) 임원자 (1995). *의복구성학*. 서울: 교문사.
- 12) Norah Waugh (1964). *The Cut of Men's Clothes*. NY: Routledge, pp.356-406.
- 13) Carl Köhler (1968). Op. cit., pp.311-406.
- 14) Janet Arnold (1985). *Patterns of Fashion*. Hollywood: Quite Specific Media Group Ltd., pp.83-92.
- 15) M. Fernarld · E. Shenton (2006). *Historic costumes and how to make them*. Mineola: Dover publication, INC., pp.95-145.
- 16) R. I. Davis (2000). *Men's 17th & 18th Century Costume cut & fashion*. Studio city: Players Press, pp.65-129.
- 17) Margot Hamilton Hill · Peter A. Bucknell (1967). *The Evolution of Fashion*. London: BT Batsford Ltd., pp.84-204.
- 18) 이형숙, 남윤자 (1996). *남성복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pp.54-62.
- 19) 김옥경, 박광애 (2004). *남성복 패턴디자인*. 서울: 경춘사, pp.109-118.
- 20) 임원자 (1995). Op. cit., p.12.